

현대차, 서울-평창 190km 자율주행

옆후 급차선 변경도 안전주행해 터널·TG·차량추월 미션대성공

〈특게이트〉

세계 최초 수소차로 190km 달려
고도화된 성능으로 기술력 입증

현대자동차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울-평창 간 고속도로 약 190km 구간에 대한 자율주행에 성공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일 선보인 자율주행 시연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를 충족하는 차세대 수소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3대와 제네시스 G80 자율주행차 2대로 진행됐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란 운전자가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 전에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정해진 조건 내 모든 상황에서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수준이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자동차를 의미하는 5단계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이번과 같이 수백km 수준의 장거리 코스에서 구간별 법규가 허용하는 최고 속도(시속 100~110km)까지 구현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특히 공해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첫 사례라고 현대차는 전했다. 자율주행 수소전기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구간에서 직접 시승에 나서 주목받기도 했다.

시연 과정을 보면 운전자가 자율주행 스티어링휠(운전대)에 있는 '크루즈'(CRUISE) 및 '세트'(SET)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되며 스스로 달리기 시작했다.

5대의 자율주행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출발, 신갈 JC(분기점)를 거쳐 영동고속도로를 질주한 뒤 대관령 IC(나들목)를 빠져나와 최종 목적지인 대관령 TG(요금소)에 무사히 도착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는 차량 흐름과 연계한 ▲차선 유지 및 변경 ▲전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주행 모습.

방 차량 추월 ▲7개 터널 통과 ▲TG·IC·JC 통과 기능 등이 구현됐다.

현대차는 차선 합류 시 주변 차량을 세밀하게 인지·판단하는 기술과 정확한 차폭 및 위치 계산 기술, GPS 신호가 끊길 경우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차량 위치를 정밀 인식하는 기술 등을 고도화해 작년 초 미국 CES에서 선보인 라스베이거스 도심 자율주행차보다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전방 및 후·측방 카메라, 전·후·측방 라이다 등 각종 센서와 장비를 추가로 장착했음에도 외관상 양산형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자율주행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조용석 국민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4단계 기술로 완벽하게 달리는 것을 체했었다"며 "다른 차량이 급격히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수소전기차의 경우 후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5G 기반 첨단 커넥티드 기술이 세계 최초로 대거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에서 한번의 터치로 생활공간을 제어하는 '카투홈' ▲지능형 음성인식 채팅 '어시스 터트 챗'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측정

하고 기분전환을 돕는 '웰니스 케어' 등이 탑재됐다.

현대차는 평창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간에는 평창 시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체험 차량을 운영한다.

시내 자율주행 코스는 대관령 119안전센터 앞 원형삼거리에서 출발, 서쪽으로 3.5km 떨어진 회전 교차로에서 우턴한 뒤 같은 길로 돌아오는 왕복 7km 구간으로 13분가량 소요된다.

국토부 김진후 사무관은 "오늘 장거리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만큼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발맞춰 정부도 제도나 인프라 등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현대차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은 "당사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철학은 더 많은 고객에게 최고의 안전을 제공하고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최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상이 현실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안에서의 4단계 수준 도심형 자율주행 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기업 전용' 서비스 벗어나 'AI 솔루션' 누구에게나 개방

SK(주) C&C 전 분야 파트너사 모집
솔루션·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



SK(주) C&C가 인공지능 솔루션·서비스 '에이브릴(Aibril)' 사업 영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한다.

SK(주) C&C는 기존 왓슨 한국어 API 판매나 대형 고객 대상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에 그쳤던 인공지능 에이브릴 사업을 앞으로는 솔루션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SK(주) C&C는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코오롱비티(주), (주)유니포인트 등 기업 IT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에이브릴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된 기업은 60여 곳이었지만 SK(주) C&C는 금융·제조·통신·공공 등 산업별 전문 시스템 구축(SI) 및 IT솔루션 기업은 물론, HR(인력)·유통·금융 컨설팅·교육·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 기업까지 협력 대상 파트너사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SK(주) C&C는 차별적 서비스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라면 누구나 에이브릴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공지능(AI) 솔루션·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 사업 확장과 유사한 전략이다.

실제 소프트뱅크는 다양한 일본 내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자동화 대물 서비스 ▲자전거 공유 솔루션 '헬로 사이클링' ▲AI콜센터인 '소프트뱅크 브레인' ▲인공지능 입사자 서류전형 평가 시스템 등을 선보였다. 세계 4000여개 기업에 공급된 로봇 '페퍼'의 영업 및 판매·금융컨설팅·노인요양·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도 이들 파트너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소프트뱅크의 사례에서 보듯 현장의 경험과 현장에서 운영되는 솔루션 혹은 사업 모델이 인공지능을 만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사업이 탄생한다. 가령 쇼핑물 제작 전문 업체가 에이브릴을 만나면 고객 성향에 맞는 쇼핑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교육 업체가 에이브릴을 만나면 인공지능 강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SK(주) C&C는 국내 파트너사를 위한 마케팅 영업 지원·솔루션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 빠른 매출 및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파트너사들의 영업 전략 수립 및 고객 발굴, 서비스 기획 컨설팅 지원은 물론 실제 솔루션 개발도 에이브릴 마케팅 펀드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오세성 기자 sesung@

KT 더 작고 똑똑해진 '기가지니2'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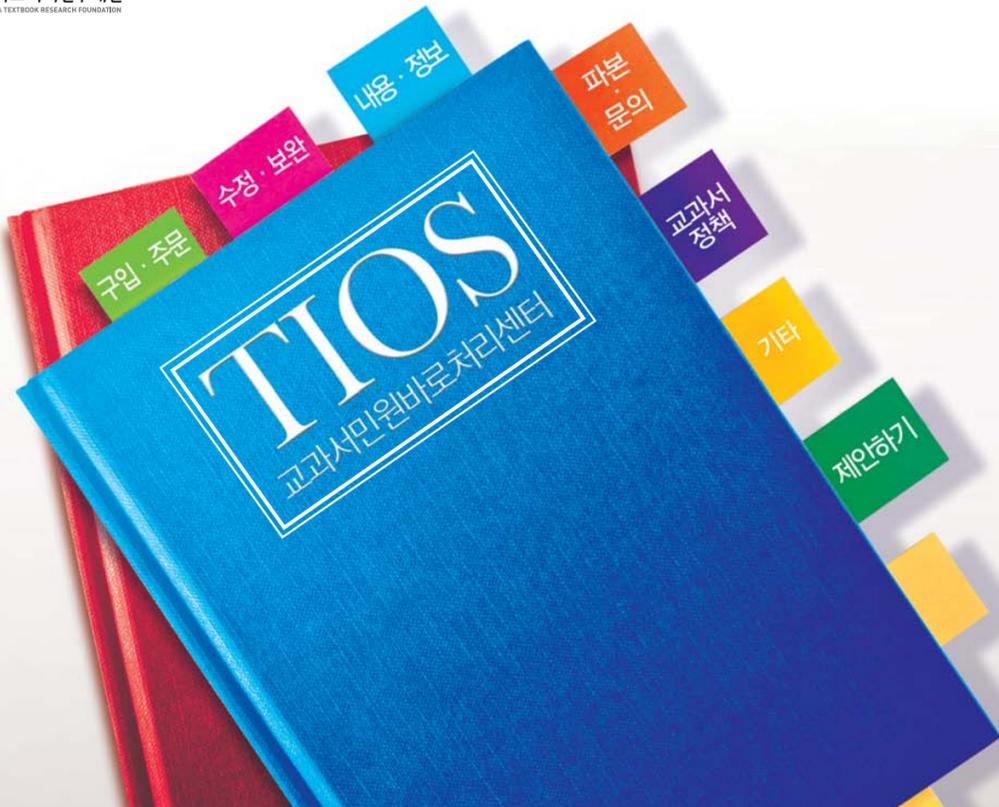
KT는 더 작아진 크기와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기가지니2(사진)'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가지니2는 크기가 기존 제품의 60% 수준(지름 122.5mm×높이 165.6mm)으로 작아졌고, 디자인도 간결해졌다.

전원과 조작부가 있는 기기 상단에는 알루미늄 메탈 색상을 적용했고, 나머지 부분에는 세련된 느낌의 차콜 그레이 색상을 입혔다. 전자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음향기기 브랜드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했다. 스피커에는 처음 전용 우퍼와 고음용 트위터가 달려 있으며, 출력은 모두 10 와트다. 스피커 그릴(앞면 보호망)은



탈착식이어서 교체가 가능하다. 또 TV 등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제어하는 적외선 송신기(IR Blaster)를 추가해 홈 IoT 제어 기능을 강화했다. 기기 임대료는 3년 약정 기준으로 월 4400원이다. 올레tv 'tv19' 이상 요금제 가입자와 5년 이상 장기 가입자 중 'tv12' 'tv15'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김나민 기자 silkn@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에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십니까?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합니다.
교과서 구입·주문, 수정·보완, 내용·정보, 파본·교환, 교과서 정책, 그리고 제안까지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TIOS)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민원 청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정확하게 교과서 민원을 해결합니다.
● TIOS이용방법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